

민예전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특별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게으르지 않음은 감로 (甘露)의 길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감로를 불사 (不死) 혹은 영생 (永生)이라고도 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행정진하여 불국정도 생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온누리에 자비 물결 넘치게...”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남북 사찰서 동시 봉행 ... 종정예하 조계사 법회 참석

오전까지 비를 뿌린 뒤 오후 늦게야 갠다던 일기예보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아침 하늘은 구름한점 없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 질지도 엷지도 않은 나뭇잎, 햇살마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빛을 내리는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종정예하가 참석, 법회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종정예경실장 선각스님은 “집행부가 새로 출범하고 통합종단 출범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는 특별히 법요식에 참석하셨다”고 말했다. 법요식 전날 서울에 도착한 법전 종정예하는 부처님오신날 아침 9시경 조계사에 도착,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의 인사를 받았다.

법요식을 알리는 28번의 범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도량을 청정하게 정리하는 ‘도량결계’의식과 향초 차 쌀 과일 꽃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공양’이 끝난 뒤 법전 종정예하는 증명법사단에 등단했다.

육법공양에서 향(解脫香)은 해탈과 화합 공덕을 상징하고 등(般若燈)은 지혜 광명 찬탄, 꽃(萬行花)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 꽃을 피운다해서 수행, 과일(菩提果)은 깨달음, 차(甘露茶)는 부처님의 법문, 쌀(禪悅米)은 기쁨과 환희를 각각 상징한다.

종정예하는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탄생불을 장엄하고 관정하는 ‘관불의식’을 함께 봉행하고 어린이 불자 4명에게 마정수기를 내렸다.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용왕이 공중에서 향수를 솟아나게 하여 신체를 세욕시켰다고 한 데서 유래하는 관불의식은 탄생불을 불단에 모시고 룸비니 동산의 화원을 상징하는 꽃바구니를 만들고 ‘향탕수’ 즉 감로다(甘露茶)를 정수리부터 붓는다.

부처님이 법을 부촉하면서 여러 보살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당대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며 수기를 내린데서 유래하는 마정수기는 억겁을 통해 지은 모든 업장이 수기를 받는 찰라에 모두 소멸된다는 크나큰 인연을 지어주는 의식이다.

이어서 중앙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찬불가가 울려퍼지는 사이 불자들의 헌축 헌등 차공양,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의 ‘가족의 행복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봉축사와 대통령 메시지 낭독이 이어졌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봉축사에서 “평화와 상생의 기운이 충만하여 가족은 화목하고 사회는 안정되며,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원칙과 신뢰가 살아숨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되새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종정예하는 “한생각 어렵게 가지면 전도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한마음을 밝게 가지면 정토의 길이 열려 눈먼 거북이는 종을 쳐서 천안을 이루고 앞산 빼꾸기는 겁외가를 부를 것입니다”라고 설했다. 종정예하의 법어에 이어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이 통일을 열망하는 남북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이 발원문은 남북한 사찰에서 동시에 봉독했다.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주관하는 평양 광법사 법요식은 박태화 대선사를 비롯한 신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KBS MBC 등 공중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발원문낭독과 각계 대표의 헌화 사홍서원을 끝으로 10시 50분경 회향됐다.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종단의 어른 스님들과 명호근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슌본 상암불 태국대사, 위자야스 스리랑카대사, 울징크 헌더 몽골대사 등 정관계인사와 주한외국대사, 일반신도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평화 상생의 기운 충만”>

사진설명: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8일 오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조계사법요식에는 법전 종정예하(오른쪽)가 직접 참석, 어린이불자 4명에게 마정수기를 내렸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봉축기획] 이라크전쟁과 한반도-전쟁과 불교

### 화염사상만이 전쟁없는 시대 연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그것을 버림으로써만이 풀어진다” <법구경>에 나와있는 이 문구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뒤 패전국 일본의 전쟁 범죄자에 대한 국제재판이 열렸을 때 스리랑카의 대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두 무죄임을 주장해 화제를 모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전 지구촌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지만 군대를 동원한 전쟁은 잠시지만 그 후폭풍은 또 얼마나 같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원한은 버림으로써만이 풀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전쟁은 멈출 것이다. 전쟁에 대한 불교의 교리적 입장과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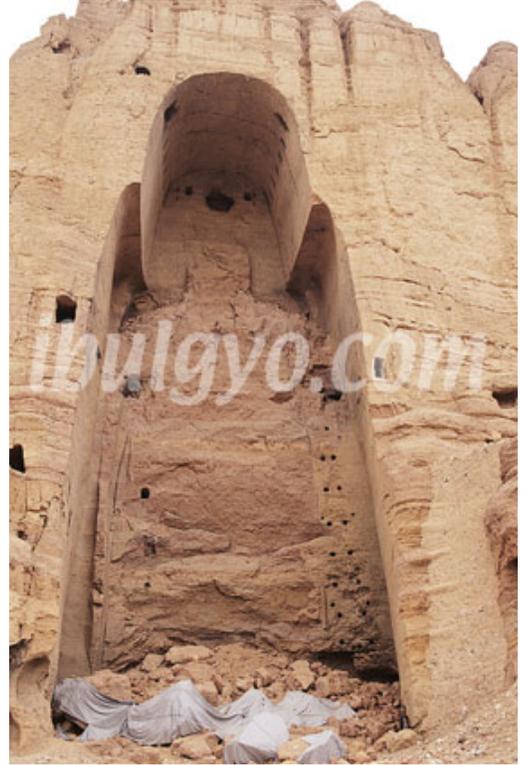
전쟁과 불교의 역사는 이중적이다. 교리적으로 불교는 전쟁을 분명히 반대한다. 역사적으로도 불교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찬성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전쟁으로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방의 한 종교에 불과했던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 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였으며, 대승불교가 번창한 것도 영토확장 전쟁을 통해서였다. 이 땅에 선불교가 들어오고 번창한 것도 후삼국의 전쟁과정에서였으며, 한국전쟁후 이 땅의 불교는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오탁악세(五濁惡世)의 겁탁(劫濁)은 기근, 질병,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적인 혼란상을 말하며, 중생탁(衆生濁)은 중생이 악행을 저지르고 도덕성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무량수경은 전쟁이 인류의 총체적인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전쟁은 탐 진 치(貪 嗔 癡) 삼독(三毒)이 원인이라고 본다. <잡아함경>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나니, 하나는 견해 때문에 싸우고 다음은 이익을 좇아 싸운다”고 했다. 즉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관계하여 모든 존재가 형성되고 활동한다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인종, 종교, 민족, 이념,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해 경쟁적, 독점적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치심(癡心)이다.

이 치심(癡心)을 바탕으로 탐욕이 발생하고, 탐욕을 채우고 채우지 못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증오와 분노가 생겨난다. 탐욕과 증오가 확장되면 살생, 폭력, 약탈, 사음 등 십악이 생기며, 10 악이 집단화, 거대화 되는 것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시대적인 혼란상의 극치를 이루어 겁탁(劫濁)이 된다. 중생이 윤회하는 욕도에서 아수라는 투쟁, 축생은 어리석음, 아귀는 탐욕의 세계로 이루어지는데 지옥은 투쟁과 어리석음과 탐욕이 모든 결합된 세계이다. 전쟁은 현실의 지옥인 것이다.

불교는 전쟁은 자유, 인권, 평화라는 생명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하지 않는다. 타종교가 자기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첫 번째 계율로 막고 있는 것과 달리 불교는



사진설명: 3~4 세기초 조성된 높이 55m 부처님에 게렸던 바미안 석굴. 탈레반이 2001년 파괴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인류 보편적 덕목인 불살생을 가장 첫머리에 놓고 있다.

부처님의 모국이었던 석가족과 콜리야족간에 가뭄이 들어 물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부처님은 “왕이여, 물과 사람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니까”라는 말로 자칫 큰 희생을 초래할 수있었던 싸움을 막았다.

## 이분법적 세계관이

어리석은 치심유발...

## 중요커져 전쟁으로

불교는 복수의 명분으로 하는 전쟁도 반대한다. 옛날 바라나시의 카시에 브라흐마다타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코살라국을 침공하자 그곳의 국왕인 디기티는 싸우지 않고 왕비를 데리고 도망하여 바라나시 근처에서 질그릇을 굽는 사람의 집에 숨어있었다. 왕비는 그곳에서 장생왕자를 낳았는데, 발각될까 두려워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 왕자는 훌륭하게 자라났고 코살라국의 왕과 왕비는 처형당한다. 장생왕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서자 왕은 “아들아 원한은 원한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만이 원하는 풀어지는 법이다”라고 말하고는 처참하게 숨겨갔다. 왕자는 신분을 숨기고 브라흐마닷타왕에게 접근, 복수를 갚을 기회를 얻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는 왕을 용서한다. 장생은 왕에게 “서로 원한을 품고 죽이면 또 뒤에 남은 사람이 상대를 죽이고 하여 원한이 그칠 새가 없을 것입니다”는 말로 화해한 뒤 빼앗겼던 코살라국을 되찾고 왕의 사위가 된다. 부처님은 교단이 서로 분열해 반목 질시하자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들려주며 화해를 주선했다.

생명을 해치는 전쟁을 반대하는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정책에서도 융화 입장을 택한다. 사막에서 탄생한 유일신 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반면, 불교는 대립 굴복보다는 화해와 융화로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의 다르마 정책이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웰즈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중의 한사람’이라고 평했던 아쇼카 왕은 기원전 262년 칼링가 전쟁을 통해 살육의 처참함과 피해를 통감하고는 불교를 신봉한뒤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르마 정책’을 입안한다. ‘진리와 도덕의 정책’이라는 다르마는 불살생 비폭력을 기본으로 한다. 아쇼카는 수십만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칼링가를 굴복시켰지만 그곳 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느낄 수 없었다.

아쇼카 왕의 다르마 정책은 관용을 가장 우선 규범으로 삼아 자기 종파에 유리하고 남의 종파에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어느 종교인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규범을 제시했다. 그 속에는 노여움 질투심 등 온갖 죄악의 감정을 버리고 불살생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불교는 다른 종교의 박해와 침략에 대해서도 불살생, 비폭력 원칙을 지켰다. 12~13세기 이슬람교도가 인도를 침입했을 때도 비폭력을 지켰으며, 부처님 재세당시 육사외도들의 모함과 박해에도 침묵으로 대응하였다. 그 유명한 중국의 3무(武)1종(宗)의 법난을 맞아서도 불교는 맞대응하지 않았다. 3무1종이란 중국에 있었던 네차례의 대표적인 불교 박해를 말한다. 3무란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당의 무종을 말하며, 1종은 당나라 이후 오대 시대에 있었던 세종을 가리킨다. 이들은 많은 스님들을 살해하고 사원 불상 경전등을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한 10.27 법난을 가장 대표적인 법난으로 꼽는데 불교가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 불살생이 불교 첫계율

## 아쇼카王 다르마정책

## 원융화합 첫사례 꼽혀

사회적 측면에서 권력과 물질적 이해 문화적 충돌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다시 권력, 물질적 이해,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종교는 현대까지도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사상적, 문화적 기반이기 때문에 종교자체가 민족과 국가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종교가 정치권력을 만들고 전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얼마전 이라크 전쟁을 비롯 현대의 크고 작은에 종교가 개입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는 불살생을 강조하는 교리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도 침공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현대까지 단 한번도 전쟁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한번의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엄청난 무력이 동원되고 문명의 교류 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아무런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와 미래에는 불교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범인스님(대홍사)은 “연기론의 사회적, 인류적, 우주적 확대인 화엄사상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인류평화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모든 존재의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존, 교류하는 화엄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바탕하여 불교인들이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상조사의 법성계는 “모든 존재는 원만하여 융통되어 두 모습일 수 없다(法性圓融無二相)/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다(一中一體多中一)/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一卽一體多卽一)/한 존재에 모든 세계가 다 모여있다(一微塵中含十方)”고 했다. 미국과 이라크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mailto:chisan@ibulgyo.com)) -

“원한은 원한에 의해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그것을 버림으로써만이 풀어진다” <법구경>

“이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나니, 하나는 견해 때문에 싸우고 다음은 이익을 쫓아 싸운다” <잡아함경>

“모든 존재는 원만하여 융통되어 두 모습일 수 없다(法性圓融無二相)/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다(一中一體多中一)/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一卽一體多卽一)/한 존재에 모든 세계가 다 모여있다(一微塵中含十方)” <의상조사의 법성계>



찬불가

## 제 등 행 진 곡

등불을 켜라 마음을 밝히자  
 등불을 들어라 어둠을 밝히자  
 마음이 밝으면 기쁨이 있고 마음이 밝으면 행복이 온다.  
 불자야 모여라 등불을 밝히자  
 불자야 나가자 중생을 건지자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등불 등불등불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 등불

등불을 켜라 대지를 밝히자  
 등불을 들어라 우주를 밝히자  
 세상이 밝으면 평화가 있고 세상이 밝으면 화합이 온다.  
 불자야 모여라 등불을 밝히자  
 불자야 나가자 중생을 건지자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등불 등불등불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등불 등등불 등불 등불



## - 컬럼비아 법등과 지원이이의 탄생 -

총무 이 진욱

지난 토요일(4월 26일)은 정말로 뜻깊은 날이었다.

불국사가 창건된 지 1년이 채 못된 이날 우리는 미주리주 컬럼비아에 불국사의 지부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름하여 컬럼비아 법등.

앞으로 컬럼비아 법등은 불국사의 지역 법등으로서 컬럼비아와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의 행사를 위하여 사찰의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나는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선각스님의 진두지휘하에 열심히 뛰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행사가 시작되기 2달전부터 의견이 개진되어 그것이 구체화되더니 행사시기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절의 신도님들은 서로들 멀리 떨어져 있어 행사준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각자가 분담한 일들을 시기 적절히 정확히 처리해 줌으로써 일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내가 이번 행사에서 맡은 일은 전체 사회를 보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난 컬럼비아 법등 창립행사에 참석할 지도 의문이었다. 아내가 만삭이고 출산예정일이 코앞이라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지냈어야 했으리라. 다행히도 나의 첫 아이가 될 지원(딸이름)이는 효녀였다.

행사가 있던 날, 아내의 몸상태가 좋아서 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할 수 있었고 집안걱정없이 그 날의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 행사당일 내가 본 선각스님은 꽤 긴장하고 계셨고 또 약간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매주 대중 앞에서 법회를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말이다. 난 그런 스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지원이를 바라는 나의 마음처럼 스님에게는 컬럼비아 법등이 지원이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나도 지원이가 태어나는 날에는 긴장하고 상기되어 있으리라 본다.

이번 컬럼비아 법등 창립 행사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도 겸한 것인데 기존 법회양식에 연등(컵등)을 제작하고 불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첨부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원을 담아 예쁜 컵등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가져갔으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무사히 행사를 마친 뒤 우리는 조출하지만 건설적인 평가회를 통해 후일의 행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하는 완벽함을 보였다. 내가 이번 행사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95점 - A+ 이상을 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석인원으로 행사장이 터져 나가지 않은 점이다. 내년 행사에는 필히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행사에 도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앞으로 컬럼비아 지역법등을 이끌어 갈 덕운거사님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로이 만난 컬럼비아의 보살님들,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 성불합시다 -

\* 참고로 5월 2일 오후 3시 23분 이 지원이는 무사히 이세상에 나왔습니다. 산모도 지원이도 모두 건강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 이틀을 남기고 새생명이 태어난 총무님네 가족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법회소식 NEWS

현재 수계식 명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도 5 계” 수계식은 5 월로 18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명이 없으신분은 필히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이 있으신분도 다시 가지고 계신 불명으로 수계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불교신도라면 꼭 신도 5 계를 받아지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너무도 겸손해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아직 보살행을 행하는 불교 신도라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우므로” 등등으로 인해서 수계받는 것을 부끄러워 합니다만 앞서 받고 서서 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불자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도 5 계 (불자 5 계)”는 꼭 받아 지녀야 합니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달 3 짜주 일요일인 5 월 18 일은 전법 기도 법회일이고 해서 계를 받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수계식에 앞서 반야심경 사경법회도 아울러 가질 예정입니다.

불기 2547 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국사 (Buddhanara Temple) 불자들이 불철주야 봉축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결과 5 월 4 일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법당에 일년간 다는 연등 불사에 동참하신 가족은 82 가족이고 영가등 불사에 동참하신 가족은 7 가족입니다. 연등을 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함임과 동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성의 등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연등불사를 위해 한국에서는 불국사 후원회, 미국 조지아주,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시는 불자들의 신심깊은 모연으로 올해에는 약 90 여개의 연등을 달수가 있었습니다. 소원성취하십시오.

대한 불교 조계종 불국사 (Buddhanara Temple)가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생긴지 이달로 꼭 1 년이 됩니다. Columbia 지역에 불국사 콜롬비아 법당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첫 콜롬비아 법등 법회는 4 월 26 일 (토요일) 10 시 30 분에 Activity & Rec Str. ARC Room A 에서 갖었습니다.

천수경, 스님 법문, 불국사 소개에 이어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서 모두가 연등을 만들수 있었고 반응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불국사 법당이 탄생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시고 몸으로 뛰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국사는 올해의 목표가 “전법의 해”에 걸맞게 다른 지역 법등 조직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위해서 화환, 선물, 케익, 과일 및 대중공양에 동참해 주신 불자들은 이 정상, 우담화 (엄 정옥), 안 소혜, 장 경래, 일각 김영신, 문 정모, 엄 상열, 심 환우, 김 성두, 박 도환 불자 가족들입니다. 여러 불자님들 덕분에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굳은일도 마다하면서 스님 뒤에서 보필은 물론이고 행사가 끝난 뒤에서 사찰에 남아서 뒷마무리까지 해주신 일각 김 영신 거사님을 비롯한 그의 불자님들 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리조나에서 거주하고 계신 장 성운 불자님께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길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일각 김영신 거사님께서 콜롬비아 법등 창립법회가 순조롭게 열릴수 있도록 회관 대여료를 시주해주시고, 아울러 불국사에 진공청소기도 시주해 주셨습니다. 류 웅렬 (소영) 거사님 가족이 불국사 1 주년 기념 및 부처님 오신날 을 기념해서 불국사에 단풍나무를 시주해주시고 불국사 마당에 식수까지 마쳐 주셨습니다. 단풍나무가 류 거사님 따님인 소영이 같이 무럭 무럭 자라주기를 기원드립니다.

드디어 불국사 충무님 가정에 예쁜 따님인 지원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산모 김미정 불자와 지원이 모두 건강합니다. 지원이의 탄생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지원이의 친 할아버지와 친 할머니가 먼길을 오셨습니다.

6 월달에 있을 특별 야외 법회는 딸기밭에서 하기로 정했습니다. 날씨는 아직 미정이고 딸기가 일년중에 가장 맛있는 날로 신도님들과 의논해서 정할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